

16개국 공정당국 벽 넘어야, '세계 7위 메가 캐리어' 등극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속도전

국내·외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마무리 아시아나, 회생 불가 회사 인정받아 인수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 내 독과점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14일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 기업결합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FSC(대형항공사)가 통폐합하는 만큼 향후 해당 국가 내 항공 시장에서의 독과점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실제 양사는 이번 통폐합이 끝날 경우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운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뉴시스

협회(IATA)에 따르면 2019년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는 29위로 양사 운송량 단순 합산에 의하면 세계 7위권으로 도약하게 된다. '메가 캐리어'의 탄생에 따른 시장 독과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최종 인수하기 위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1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일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합병인 만큼 국내 공정위의 승인이 불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열린 대한항공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주식발행 총수 확대를

위한 정관변경안 관련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해, 공정위의 합병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사의 통폐합 시 일부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양사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떠나는 기업에는 결합 심사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아시아나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규정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의 소요 기간 관련 "사안마다 다르지만, 규정상 30일로 되어있다. 연장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규제 당국도 항공사 간 합병을 불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기흥 대한항공 사장도 독과점 이슈 관련 "한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인천공항의

여객 슬롯 점유율은 약 38.5%이고, 화물기까지 포함해 약 40%다"라며 "지방 공항을 포함하면 양사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낮아져, 국내 시장에서의 일부 장거리 노선을 제외하고 독점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관련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노선이 많지 않아 크게 이슈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항공사 M&A(인수 합병)가 많았지만, 그 자체가 승인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에 대한 서면 실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현장 실사에 들어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우기흥 사장을 인수위원장으로 하고, 인수위원회를 꾸려 서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제 대한항공은 약 3개월여간 현장실사를 진행해 오는 3월 17일 통합(PMI) 계획안 작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S전선, 이집트에 아프리카 케이블 공장 준공

주요 거점 국가에 LS전선 직접 투자 신규 수요·전력망 노후화로 수요 ↑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LS전선이 이집트에 아프리카 첫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다.

LS전선은 지난해 1월 카이로 내 인근 산업도시에 현지 케이블 전문 시공업체인 만(MAN)사와 합작법인(LSMC)을 설립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주로 발전소와 변전소 간 철탑에 가설되는 가공 송전선을 생산한다. 최근에는 이집트 전력청과 신도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해 공장 준공과 함께 양산에 들어갔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경제 블록화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거점 국가에 직접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케이블 시장은 신형정수도 건



LS전선의 이집트 공장(LSMC)에서 직원이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설,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와 기존 전력망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수요가 겹쳐 매년 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집트를 비롯해 아프리카 지역은 전력 케이블의 수요가 많은데도 약 20%의 관세와 물류비로 수출 장벽이 높았다"며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트너사의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LS전선은 이집트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동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LS전선은 이집트 법인의 준공으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폴란드 등 해외에 총 11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게 됐다.

/김수지 기자

"이통3사 인증서로 연말정산 '패스'하세요"

패스 보안 기능 강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의 인증서 'PASS(패스)'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인증서 '패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 알리기 나섰다 13일 밝혔다.

패스 인증서는 패스 앱이 실행 중인 상태라면 추가 확인절차 없이 터치 두 번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의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추가로 거쳐야 하는 타 인증서보다 발급 절차를 간소화 했다.

패스 인증서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 인증서'를 골라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이통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 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한다. 이때 이용자가 6자리 핀 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는 식이다.

이동통신 3사는 패스의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패스 인증서는 발급 시 이통사에 정상 개봉된 가입자를 확인하며, 유심(USIM) 정보를 포함한 단말 인증 및 IP체크 등 스마트폰 가입 내용을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2단계로 한다. 2단계 인증은 국내 전자서명 서비스 중 패스가 유일하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 플러그파워 투자 5일만에 2배 '썰렁'

지분 가치 상승분 2조 수억

미국 플러그파워가 프랑스 르노 그룹과 손을 잡는다. 최근 플러그파워에 공동 투자한 SK㈜와 SK E&S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플러그파워는 르노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유럽 중소형 수소 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유럽 연료 전기 기반 중소형 상용차 시장 30% 이상 점유를 목표로 수소차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플러그파워 주가는 12일 66달러로 마감했다. SK가 취득한 주당 가격이 29달러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

이다. 투자 5일만에 지분 가치 상승분으로 2조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큰 기대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투자는 행들도 SK와 플러그파워는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양사간 협력을 통해 아시아 수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SK 관계자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대비하여 오랜 기간 수소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치밀한 실행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플러그파워 투자도 오랜 검

토 끝에 이뤄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수소 에너지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 E&S를 중심으로 수소 밸류체인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섰으며, 플러그파워에도 이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투자뿐 아니라 경영 참여까지 수행했다고 알려졌다.

SK E&S 사장 겸 SK 수소사업추진단장인 추형욱 사장은 "SK그룹의 사업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공급 능력과 플러그파워의 수소 액화·운송·충전 분야의 기술을 접목한다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밸류체인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SK E&S를 도시가스 회사에서 세전이익 1조원 이상의 글로벌 LNG 회사로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국타이어,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내구레이스 '24시 시리즈'의 2021 시즌이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두바이 오토드롬 서킷에서 개최된다.

13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올 시즌은 두바이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등 대륙을 넘나들며 전 세계 7개국에서 8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시즌은 메인 레이싱인 'GT-디비전'과 투어링카를 위한 내구 레이싱인 'TCE-디비전'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된다.

'포르쉐 991', '람보르기니 우라칸', '메르세데스-AMG GT4', '아우디 R8' 등 글로벌 프리미엄 슈퍼카들이 참가해 한국타이어와 함께 24시간 동안 쉬지



'24시 시리즈' 2020 시즌 대회 현장.

않고 고난도의 서킷을 주행하며 극한의 내구 레이싱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2015년부터 '24시 시리즈'의 공식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내구성 강한 최상의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며 글로벌 Top Tier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차량에 한국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가 장착되며 모든 경기에서 '24H Series Powered by Hankook'라는 공식 명칭이 사용된다.

/양성운 기자 ysw@